하나님 정전과 해골물

(요12:44~50)

44.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45.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46.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47.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48.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49.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50.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정전과 해골 물>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하나님이 정전되었고, 해골 물을 마신다.

원효대사의 일화를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661년에 서른 살이 된 의상을 동반해서 마흔 살이 된 원효대사가 당나라로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의상과 함께 경주를 떠나서 이제 배를 타고 당나라로 가기 위해서 지금의 경기도 화성시에 해당되는 당항성 근처에 왔을 때 날이 저물고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달빛도 없이 비가 내리는 깜깜한 밤에 비를 피하기 위할 곳을 찾다가 마침 비를 피할 곳이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가 밤을 새우게 되는데, 원효대사가 너무나 목이 마릅니다.

갈증이 심해서 답답한 마음에 손을 더듬어서 옆을 찾다가 바가지 하나가 손에 걸려서 손을 담가보니 물이 담겨 있습니다.
마침 잘됐다 싶어서 바가지의 물을 시원하게 들이키고 잠을 잘 잤습니다.
아침에 비가 멎고 햇살이 가득 들어오고 있는데, 눈을 떠보니 어젯밤에 비를 피하기 위해 들어온 장소가 무덤입니다, 무덤이 어떤 형태로 돼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무덤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시원하게 마신 물이 다름이 아닌 해골바가지에 담겨서 썩고 고인 빗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해골바가지 안을 들여다보니 온갖 벌레가 득실거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원효가 구토를 합니다.
그리고 구토를 하던 중에 깨닫게 됩니다.

'아! 모든 이 세상의 현상이라는 것들이, 좋다 나쁘다 괴롭다 즐겁다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마음의 분별일 뿐이로구나!'
'내 마음이 그렇게 깨닫는 것일 뿐이지,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는 시원한 물을 담고 있는 바가지로 느껴질 수도 있고, 내 마음의 깨달음에 따라서는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물도 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과 상태가 벌레가 득실거리는 해골에 고인 빗물이라고 보는 것도 마음의 깨달음일 뿐이고, 내게 주어진 현상이 좋다고 느끼고 있는 것도 마음의 깨달음일 뿐이니까, 내가 당나라에 유학을 가서 무엇 하겠느냐?'
'오직 마음의 문제일 뿐, 마음 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인데.'
'오직 마음에서 어떻게 깨닫느냐에 따라서 삼라만상에 대한 분별이 차이가 나는 것일 뿐, 당나라까지 삼장법사를 찾아간들 무슨 그리 대단한 깨달음을 새삼스럽게 얻을 수 있겠느냐?' 하고 의상과 결별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결혼을 안 하는 것은 무엇이고 결혼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 마음의 분별의 차이일 뿐이다'
그리고 파계를 하면서 요석공주와의 사이에 설총을 낳게 되고, 설총을 낳은 뒤로는 아예 절에서 나와서 소성거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대중들에게 파고 들어서 대중들에게 불교를 전파하다가 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의 대중화를 위한 어떤 역사적인 기점을 마련한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쉬움이 있어요.
온갖 벌레가 득실거리고 있던 그 해골바가지 안에 고인 물, 그것이 정말 마음의 깨달음일 뿐입니까?
온갖 벌레가 득실거리는 썩은 빗물이 고인 해골바가지는 객관적으로, 실제로 더러운 것으로 도저히 입에 갖다 대서는 안 될 것으로 실제로 더러운 것은 아닙니까?
그냥 마음의 분별일 뿐입니까?
그러므로 마음의 분별을 없애고 나면 해골바가지에 벌레가 득실거리고 썩은 물이 고여 있다는 그 자체도 없어져버리는 겁니까?
성서적으로 볼 때는 이 원효대사의 그 상황에서의 문제의식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겁니다.
마음의 분별의 문제가 아니라, 빛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빛이 없었다는 것을 문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빛이 없을 때는 해골바가지에 벌레가 득실거리고 썩은 빗물이 고인 것도 그렇게 좋다고 마실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보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빛이 있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깨달음은 '마음의 분별이다' 이렇게 와야 할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마음의 분별이 어떠하든지 내가 어떻게 상황을 파악하고 인식하든지 객관적인 상황은 언제나 존재하는데, 불교의 문제는 객관적인 실체가 오직 마음의 분별의 문제일 뿐이라고 해가지고, 객관적인 실제 자체를 무시하고 자기를 속입니다.
내 마음에서 없다 그러면 객관적인 실체도 없는 거라고 속이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잘못 깨닫고 있다는 걸 왜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에서 없는 거라고 생각하면 실제도 없는 거라고 여겨버리며 나를 속이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이름일 뿐이라는 거예요.
'부처를 마른 똥 말뚝이라고 한들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름일 뿐이지…'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니까? 이름이?
내 마음 바깥에 객관적으로 실재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이름이 함부로 이야기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왜 실재를 없는 것이라고 자꾸 속여요?
색즉시공이요 공즉시색이다, 왜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까?

원효대사께서 깜깜한 밤중에 그렇게 더럽고 추악한 해골에 담긴 물이란 걸 모르고 마셨는데 거기에 독충이 있어서 독충이 죽으면서 속에 있던 독극물이 나와 있었던 거라면 원효대사는 죽습니다.
그러므로 깨달음은 어떻게 왔어야 되느냐 하면, 빛의 문제로 왔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대명천지에 햇빛 아래서 밝히 보고 산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갈증이 났을 때 깜깜한 어둠 속에서 해골바가지에 담긴 물을 먹고 시원하고 좋다고 여겼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이 좋다고 여긴다, 돈을 많이 가지면 시원하다고 여긴다, 높은 벼슬을 하면 우리가 시원하다고 여기고 좋다고 여긴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빛이 없기 때문에 좋다고 여기는 것은 아닐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깨달음을 얻었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햇빛 아래서 보고 있지만 등불 아래서 보고 있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우리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돈이 그렇게 좋아 보이는 것은 아닐까?
어둠 속에서 무덤 속에서 해골바가지의 물이 그렇게 시원했던 것처럼 권력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닐까? 오래 사는 게 그렇게 좋게 여겨지는 것은 빛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참 빛의 문제로 파악을 했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또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요한복음은 예수님 자신이 당신 자신을 향해서 빛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요한복음 서론부터 이 세상에 빛이 오셨다고 얘기하면서, 계속 빛이라는 말씀을 반복해 하십니다.
이게 뭘까?
예수님께서 빛이라고 하신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선악과 얘기를 다시 한 번 해봅니다.
선악과는 그걸 먹게 되면 인간 스스로가 분별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분별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언뜻 들으면 원효대사가 깨달은 깨달음과 일맥상통한 것 같아요.
'분별하지 말라' '선악을 판단하지 말라' '내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내가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말라'
그러니까 원효대사가 가르친 것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니요, 180도 다릅니다.
왜 선악과를 세워두시고 우리가 판단하고 분별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원효대사와 같은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너무나 분별이 중요하고, 너무나 판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판단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일까요?
지금 이 상황을 좋다, 나쁘다고 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판단을 끄라는 의도로 선악과가 세워져 있었던 겁니다.
너무나도 판단과 분별이 중요하기에 주님께서도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무나 중요한데 왜 판단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들이시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내가 판단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분별,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밝은 이해, 하나님의 뜻이 정전돼버린 겁니다.
완전히 끊어져 정전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분별이 흘러들어 와야 우리가 이 세상을 밝히 볼 수 있는데, 내가 만지고 있는 이게 해골물인지 마셔도 될 물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는 어두움이 있기 때문에.
이때 하나님의 분별이 전류처럼 흘러들어 와서 내가 만지고 있는 것이 해골물이라는 게 밝히 보여 졌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목이 마르면 밖에 나가서 하늘을 향해 입을 벌리고 빗물을 마실지언정 손에 걸리는 것을 어둠 속에서 무조건 들이키면 안 되는 거예요.
원효대사라는 분이 참 조심성이 없는 분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뭐가 들어있을 줄 알고?
우리가 도대체 돈이라고 하는 것에 뭐가 들어있는 줄 알고 그렇게 돈! 돈! 하는 겁니까?

주님께서 당신이 빛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나를 보는 것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이 말씀도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무슨 뜻입니까?
왜 나를 보는 것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

는 것이 됩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분별, 하나님의 계획, 소원이 막힘이 없고 가감이 없이 예수님 안으로 전기가 흘러들어오듯이 그대로 다 흘러들어오니까.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갖고 계시는 모든 분별과 판단과 생각이 그대로 다~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는 사람, 예수님이 당하는 상황, 예수님이 만지는 물건,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판단과 생각이 막힘없이 전류가 흐르듯 그대로 다 흘러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말씀이니까, 그렇게 다~ 들어오시니까.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이다, 나를 믿는 자는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될 것이다'
믿는다는 게 뭡니까?
주님에게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주님에게 마음을 드립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께 마음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민망해서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하나님께 이때를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냐? 아니다, 내가 민망하고 괴롭고 힘들기는 하지만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왔노라!'
공생애 기간 동안에 기적을 행하시기 위해 오신 것도 아니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위해 오신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이때를 위하여 왔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는 게 믿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 내 마음을 드릴 때, 왜 빛에 거하게 됩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분별이 죽기 때문입니다.
몸을 입고 사는 이 '나'가 죽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해 죽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눈앞에 보고 있고 듣고 있고 손으로 만지고 있는 모든 이 세상 사람과 사물과 상황에 대하여 십자가 예수님께 내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죽는 것이고, 내 분별이 꺼지

는 것입니다.
내 분별이 정전되고, 내 판단력이 꺼지는 거예요.
이때 주님이 계신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분별,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흘러들어오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정전이 극복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지요, 1977년 7월 13일 뉴욕시에 스물다섯 시간 정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스물다섯 시간 동안에 천 곳이 넘는 뉴욕시의 상점이 다 털리고 3776명의 범인을 경찰이 체포했으며, 1026건의 방화가 발생합니다.
아비규환이었어요, 아비규환.

지금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은 상태로 자식을 만나지 않고 자식에게 하는 모든 것들이 해골에 담긴 물이 시원하고 좋은 거라고 자식에게 들이미는 것은 아니냐 이겁니다.
내가 그렇게 좋다고 여기는 돈이라는 게 해골에 담긴 물을 마시는 게 아니냐 이거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오복이 하나님의 판단 아래서 밝히 보면 다 해골물인데, 그게 그렇게 시원하다고 그걸 갈증나하면서 추구하며 사는 것은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으로 태어나서 바리새인으로 갖고 있는 스펙, 가말리엘 문하생으로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으며 부자였으며 바리새인 중의 바리새인이라는 선두 엘리트그룹, 요즘으로 말하면 명문대를 나와서 일류 대기업에서 승승장구하는 그런 삶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분별과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이해와 뜻이 정전되지 않고 그대로 전류 흐르듯 들어오는 그 자리에 서서, 그동안 마음 주머니 안에 좋다고 여겨서 가득 담고 있던 것을 보니, 아니! 이게 뭡니까? 다 해골물이고 배설물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 급하게 배설시켜 버립니다.

명예라는 것, 돈이라는 것, 지식이라는 것, 학벌이라는 것, 가문이라는 것, 이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십자가의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정전되지 않고 흘러들어오는 그 자리에서 밝히 보니까 다 배설물이에요.
내 마음에 가지면 배설물인 거예요.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내 마음에 넣지 않고 오자마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보내는 게 돈입니다.

다윗이 권력을 의지해서 우리야의 아내를 범했다가 결국 나라가 풍비박산이 나버립니다.
그런 것을 아는 것이에요, 권력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걸 보는 겁니다.
이생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오복, 해골바가지에 고인 물이에요, 그 해골바가지에 온갖 벌레가 득실거리고 있습니다.
돈, 돈! 하지 마세요!
장수, 장수, 하지 마세요!
출세! 출세! 하지 마세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과 연합해서 세상 사람들과 공유하고 있는 판단의 기준의 스위치를 꺼버리고 나면, 천지에 추구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그것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효대사는 문제의 방향을 잘못 잡았습니다.
객관적으로 더러운 것이 있고 깨끗한 것이 있고,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판단이 있으시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이 세상이 있고,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유일한 참 진리가 되는 분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하나님의 진리 되는 분별이, 우리가 우리의 분별력의 스위치를 켜면서 정전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지금 어둠 속에서 아비규환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찾을 것도 아니고, 구할 것도 아니고, 두드릴 것도 아닌 데에 가서 두드리고 있고, 찾고 있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 세상에 대해서 죽어버리는 겁니다.
내 판단이 죽고, 분별이 죽고, 소원이 죽고, 계획이 죽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을 대할 때, 가족이든 직장동료든, 내 인생을 대할 때, 내 인생의 미래를 생각할 때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때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정전이 극복된 상태에서 전류처럼 흘러들어올 것이고, 내가 대하고 마주하는 모든 사물 상황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밝은 분별이 빛처럼 흘러들어올 것이고, '걱정하지 않아야 될 것을 걱정하고 있었고, 추구할 필요도 없는 것들을 추구하고 있었고, 그때그때 진리 되시는 하나님아버지의 사랑에서 나오는 계획과 분별과 판단을 따라서 그날 하루 살면 되는 것을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무겁게 짐을 지고 살았구나!' 깨닫게 될 것입니다.

원효대사의 해골물, 빛이 없으면 그처럼 시원하고 좋은 게 없는 것이고, 빛이 보이면 그처럼 더럽고 추악한 것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주님께 마음을 드리므로 빛의 세상으로 들어가서 오직 하늘에서 주어지는 희락만이 우리의 기업이 되고 우리의 분깃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빛이신 주님께 마음을 드리므로 그릇된 분별과 판단에서 비롯된 아비규환의 암흑 속의 삶을 중단하여 빛의 나라 안에 들어가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